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13.34 (+234.30)	↑ 코스닥	861.37 (+2.46)
↓ 금리 (미국 9년)	3.781 (-0.010)	↑ 환율 (원-달러)	1423.15 (+7.45)

수도권에 23만호 추가공급...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확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신규택지 10만호 등 공급 속도전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
기존 68개월→37개월 대폭 단축
신속착공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로 상향

정부가 수도권에만 23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은 크게 앞당기고,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근책을 내놨다.

대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 자체도 늘지만 이주비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경우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기사 3·6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택지를 조성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공택지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장지동 등이다. 사진은 5만1000㎡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모습. /뉴시스

이번 대책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가리지 않고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한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하

거나 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도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로 2만 7000호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을 목표로 지원한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는 만큼 범

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판셋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과 이주비대출 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등도 병행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는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비거주 1주택까지 확대하며, 성과급 등에 따른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기준도 바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빌게이츠, 오늘 방한... 'SMR 동맹' 속도

(소형모듈원자로)

한성숙 총리·정기선 회장 등과 면담 韓 기업과 테라파워 협력확장 기대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원전업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SMR 도입을 앞당기는 데 힘을 싣고 국내 기업들도 테라파워의 제조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의 기술·제조·건설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14일 방한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정기선 HD현대 회장, SK 경영진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SMR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의 4세대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테라파워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해 8월22일 SMR 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자로인 '나트륨(Natrium)'을 건설하고 있다. 2024년 6월 비원자력 시설 공사를 시작할 데 이어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았고 4월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다. 후속 원자로 배치도 추진하면서 핵심 기자재를 반복 생산할 제조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HD현대가 지분 투자에서 핵심기기 제작과 제조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약 425억원)를 투자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12월 첫 나트륨 원자로에 들어갈

원자로 용기 제작을 수주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제조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5월에는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테라파워는 HD현대중공업을 나트륨 원자로 외 함시스템 핵심 설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회동에서도 후속 원자로 기자재 공급을 비롯한 추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주)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올해 1월 한국 수력원자력이 SK이노베이션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도 테라파워의 국내 제조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의 제작성 검토 및 설계 지원 계약을 체결한 뒤 첫 원자로에 들어갈 원자로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동체구조물 등 핵심 기자재 3종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모두의 창업' 1만명 육성... 20일부터 접수

중기부, 선발 규모 두배로 늘리고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자격 확대

정부가 8월20일부터 시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총 1만명의 혁신 창업자를 발굴한다.

참가 자격도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확대해 문을 넓힌다.

예비창업자는 전체의 80% 이상을,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는 70% 이상을 선발한다. 하나은행, 신한스퀘어브리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보육기관은 170여 곳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1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차 모두의 창업은 1차보다 선발 규모를 두배로 늘렸다.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지 않은 제도전자에게 제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및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제도전 이력을 우대한다.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및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에서 발굴

한 우수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 패스트 트랙으로 연계한다.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 보육기관의 멘토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 멘토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창업 도전 분야와 방식도 확대했다.

대학 창업동아리와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도전 기회를 넓혔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와 해외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한다.

선발과 지원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선발 과정에서 멘토3인의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검사와 외부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AI 검증 모델'을 도입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도 기존 'WHY·WHAT·HOW 3개 항목'에서 도전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READY', 기창업자·제도전자를 위한 별도 평가 항목 등 최대 6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12·29 참사' 재수습 현장 방문...“진상 규명·추모 모두 쟁길 것” /사진 뉴시스
▲정청래 “김민석, 지난 1년간 부동산 공급 위해 땀 흘려...답답할 노릇”

▲국힘, '당협 물갈이' 의견 수렴키로...“지선 활동 미흡한 당협 교체”
▲마포대교 남단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폭주족 20명 검거

▲“코인 선물 투자, 더 넣으면 복구해준다”...경찰, 유사투자자문사 압수수색
▲‘태움’ 뿌리 뽑는다...복지부·노동부 ‘안전한 병원 만들기’